

재무설계, 행복한 미래를 여는 현명한 선택 **놀라운 내일을 설계하는 CFP®**

	보 도 자 료		
	보도일	2023.4.06.(목)	
	배포일	2023.4.06.(목)	
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김지옥 팀장 / 02-3276-7612, jwkim@fpsbkorea.org gio0703@gmail.com			

제목: “서울 영테크” 신청 사이트 오픈런! 신뢰받는 전문가를 찾아...

- 정보 과잉의 시대, 나한테 딱 맞는 정보로 상담해주는 「서울 영테크」 상담신청 폭주
- 한국FPSB가 사업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되어, CFP 및 AFPK 자격자가 재무 상담사로 활동



서울 영테크 상담사로 선정된 CFP 및 AFPK자격자가 한국FPSB 강의실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.

□ 한국FPSB(회장 김용환)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「서울 영테크」 사업의 전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년까지 2만여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“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에 제에게 딱 맞는 해법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. 저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추어 상담해 주신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” (2022년 서울 영테크 상담후기)

- 작년 서울 영테크에서 상담 받은 어느 청년의 상담후기이다. 흔히 금융시장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, 손바닥 안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요즘에는 오히려 정보 과잉이 올바른 금융의사결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.
- 금융시장의 정보 과잉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정보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“신뢰” 할만한 전문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.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나의 상황과 미래에 꼭 맞는 정보를 모아 함께 퍼즐을 맞춰갈 신뢰할 만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.
-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「서울 영테크」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4월 3일 신청 사이트를 열자마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.
- 서울 영테크는 서울시 거주 만 19~39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‘청년몽땅정보통’ 사이트를 통해 상담 및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.
- 서울 영테크 사업은 작년도의 높은 만족도(상담 만족도(95.7점)와 상담사 만족도(97.3점))와 청년들의 사업 확대 요구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참여인원을 연간 1만명으로 확대하고, 사업기간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였다.
- 또한 명사 초청 강의 및 체험형 금융교육도 연간 5천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, 온·오프 커뮤니티도 개설하여 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- 한국FPSB는 국제FPSB의 기준에 따라 CFP 및 AFPK자격자를 인증하고 양성하는 기관으로, 「서울 영테크」에는 CFP 및 AFPK자격자가 상담사로 참여한다. 상담사는 청년 1인당 2~3회 상담을 통해 요청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층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.
- 이번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사 모집에 관심이 높았는데, 60명의 영테크 재무상

답사를 선발하는 모집공고에 367명의 CFP 및 AFPK자격자가 지원하여 높은 경쟁을 보였다. 서류전형과 심층 면접으로 선발된 재무상담사는 별도의 영테크 전문상담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.

-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은 "서울 영테크 사업은 요즘과 같이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시기에 청년들에게는 어두운 밤길의 등불 같은 지침이며, 상담사로 참여하는 CFP 및 AFPK자격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공익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재무설계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" 고 말했다.

끝.